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 님들~

다가오는 주일 복음을 접하며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숙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에 마땅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할 것들, 감사할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오늘의 나를 있게해준 모든 것에,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녹)연중 제28주일]:
10월 9일 복음 말씀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나?>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11-19

1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12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13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4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5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16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18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나?” 19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0월 첫째주 공지 드립니다

<지난행사>

본당 32주년 생일!

10/7일 본당 창립 *3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주일(10/2) 본당에서 점심식사 가 제공 되었습니다. 식사 후 친교실 뒷정리를 도운 문지영, 홍상미, 차아름, 전진영, 김정호, 권창모, 그리고 트락회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지난 공지에 33주년이라 잘못 공지가 되어 정정합니다. 올해는 본당 창립 *32주년*입니다. 죄송~)

본당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신부님께서 지난 오월에 제시하셨던 "**오클랜드 가톨릭 공동체 비전 2020**"를 지난 주일 다시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우리 각자가 본당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비전2020를위해 어떠한 실천을 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도 서로 격려하며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실천해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본당 공동체가 더욱 더 활기차고 신바람나게, 주님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들 기도속에 기억해 주세요.

성시간: 10/6 목

매달 첫째주 목요일 저녁미사 (7:30)와 함께 성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바랍니다.

성시간: 예수성심에 대한 신심의 하나로 한 시간 동안 특별히 겐세마니에서의 예수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나"(마태 26:40)라고 한 성서 말씀에 근거한다. 성시간은 성체현시와 예수 수난에 대한 묵상, 장엄기도, 성가, 성체강복 등으로 이루어진다.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며 예수 성심께 위로를 드리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한다. 깊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성시간에 참여하는 이에게는 10년의 *한대사가 주어지며, 1933년 교황 비오 11세는 성시간에 참여한 자로서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지향대로 기도하는 이에게 *전대사를 허락하였

다. (*한대사, *전대사: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view.asp?ctxtldN um=4383&keyword=%B4%EB%BB%E7&qubun=01&qubun=01>)

기도

- 위독하신 **이영재 루카 형제의 아버지 이현진 형제님께서 하루빨리 의식을 회복하시길**, 형제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 병환중이신 주임 신부님의 어머니 **김중운 세실리아 자매님**과 신부님, 가족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 불의의 사고로, 또한 마음과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주님안에서 잘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서로에게 힘이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함께 기도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회장단에게 알려 주세요.*

오클랜드 교구 제 20회 차우타우과 행사: 10/8 토요일

오클랜드 교구 내 소수 민족 잔치인 차우타우과 연중행사가 오는 10/8 토요일에 있으며 하모니와 트락회가 행사 셋팅, 음식 운반/판매 및 뒷정리에 함께 봉사합니다. **셋팅(4명)과 음식 운반(4명)에 도움이 필요하니, 뜻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셋팅 봉사팀은 **아침 7:45까지 행사장으로 (로렌스 성당, 밑 주소 참고)**, 그리고 **음식 봉사팀은 아침 8:15시**까지 우리 성당으로 와 주세요. 마이클 주교님과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미사를 공동 집전하시며 각 민족의 민속 공연 및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소수민족 잔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10/8 토, 오전 9:30-오후 4:30

장소(로렌스 성당): St. Lawrence O'Toole-St. Cyrill Church (3725 High St. Oakland)

하모니 후원금 -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엄명련 페트리샤 자매님께서 \$50을 하모니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주 (9/25) 연도 설거지에 봉사한 하모니 +트락님들을 위해 알라메다 구역에서 \$100을 당일 봉사자들 봉사후 식사 비용으로 보태 주셨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마르코 복음 가톨릭 성서모임


청년들을 위한 마르코복음 성서모임 **보충 오리엔테이션이 오는 금요일 (10/7) 저녁 7시에 소망방**에서 있습니다. 본격적인 성서 모임은 10/14 (금) 저녁 7시에 시작됩니다.

준비에 중요한 오리엔테이션이니만큼 성서모임에 관심있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세요.

이것이 궁금해요~

교리/신앙 생활에 대해 제출된 질문을 다음주 (10/9) 공지 시간부터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질문은 성당 입구에 비치된 종이에 써서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리마인더>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2016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박보라 율리아나 [917-817-8908](tel:917-817-8908)

김정호 이냐시오 [510-299-2297](tel:510-299-2297)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tel:1-510-553-9434)

Web: www.oakcc.org

성 김대건 안드레아(오클랜드) 한인 가톨릭 공동체 비전 2020

• 한의 계속성,

사랑합니다.

본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재부흥을 위한 교육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에 우리 모임 발전을 위한 비전 2020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육을
제1 마음을 모아 서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위용력은 비전
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위한 것이니만큼 우리 마음을 함께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의 우리 교육들을 읽고 2020년을 향해 힘있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가 우리 교육을 거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일 성체 프랑 -

<공동체 연혁>



오클랜드 가톨릭 공동...